

### 서울아산병원 중입자치료센터 착공



서울아산병원 중입자치료센터 착공식에서 관계자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정경구 IPARK현대산업개발 대표, 이창규 DK메디칼솔루션 회장, 코우 이소기미 니켄세이샤 설계부문 대표, 초토무 다케우치 도시바사 대표,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서강석 송파구청장, 박성욱 아산의료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송시열 서울아산병원 중입자추진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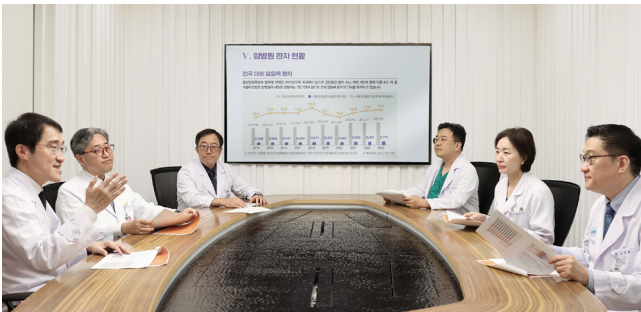
서울아산병원은 6월 11일 중입자치료센터 착공식을 열었다. 서울아산병원 중입자치료센터는 2031년 가동을 목표로 연면적 39,502㎡(약 11,949평)에 총 12층(지하 3층, 지상 9층) 건물

로 지어진다. 국내 중입자치료센터 중 최대 규모다. 내부에는 일본 도시바사가 제작한 회전형 치료기 2대와 고정형 치료기 1대 등 최고 사양의 장비가 들어갈 예정이다. 중입자치료센터 건물은 IPARK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며 감리는 한미글로벌이 맡는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1977년 선친이신 정주영 설립자님이 아산재단을 만드실 때와는 달리 오늘날 무의촌은 사실상 사라졌지만, 여전히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

자들이 많다”면서 “새로운 치료 기회를 기다리는 난치성 암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중입자 치료기 도입은 선친의 뜻을 이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암치료 성과 담은 ‘의료질 평가 보고서’ 발간



송시열 암병원장(사진 왼쪽)을 비롯한 서울아산병원 암병원 의료진.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이 6월 8일 국제종양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암 치료 성과를 분석한 ‘암분야 의료질 평가 보고서(Outcomes Book, 아웃컴즈북)’를 발간했다. 올해로 세 번째 발간된 암분야 의료질 평가 보고서에는 난소·자궁암센터, 뇌종양센터, 담도·췌장암센터, 대장암센터, 위암센터, 유방암센터, 혈액암·골수이식센터 등 7개 센터의 치료 성과를 담았다. 특히 올해부터 국제종양분류 체계인 ‘ICD-O-3 조직학적 분류체계’를 추가적으로 적용해 암의 조직학적 특성과 임상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데이터 체계를 고도화했다.

### 파킨슨·알츠하이머센터 심포지엄 개최



6월 5일 열린 파킨슨·알츠하이머센터 심포지엄 참석자들.

서울아산병원은 6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파킨슨·알츠하이머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올해는 전 세계 6개 대륙, 60여 개의 연구 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파킨슨병 유전역학 국제 컨소시엄’과 함께 심포지엄을 개최해 학술적 깊이를 더했다. 연자로는 미국 메이요 클리닉의 팸 매클레인, 독일 뤼베크 의과대학의 크리스틴 클라인,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대학교의 레이크 크루거, 프랑스 파리 제6대학교의 수잔 레사지 등 총 10개국 23명의 신경과 분야 세계적인 학자들이 참여해 파킨슨·알츠하이머 연구의 최신 흐름과 미래 전략을 조망했다.